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마7:12)

하나님과 상대를 어떻게 대접했나?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마7:12).

이 말씀은 곧, ‘비판을 받으려면 상대를 비판하고,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정죄 받고 싶으면 상대를 정죄하고, 정죄 받고 싶지 않거든 정죄하지 말라. 용서받고 싶으면 상대를 용서하고, 용서받고 싶지 않거든 용서하지 말라. 대접받고 싶으면 상대를 먼저 대접하고, 푸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푸대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 먼저 ‘야호’ 하고 소리를 지르면 ‘야호’ 하고 돌아오지만, ‘바보’라고 외치면 ‘바보’라고 돌아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야호’ 한 번 했다고 ‘야호’ 하고 한 번 돌아옵디까? 아니요. 수 없는 ‘야호’가 돌아옵니다. 한 번 ‘바보’라고 하면 ‘바보, 바보...’로 돌아옵니다. 상대에게 대접하는 그대로 내가 받는데, 그것도 흔들어 놀려 넘치도록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하여 ‘황금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잘 정립하고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요? 백 명의 동지보다 한 명의 적을 두지 말라고요. 그게 뭘니까? 내가 잘못 대접한 한 사람으로 인해 내 인생이 꼬이고 망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원수는 꼭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니까요. 그러니 상대를 지혜롭게 잘 대접해야 합니다. 자고로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얻

세상이 삭막한 것은 인간미가 없어서다

는다고 하셨거든요(잠11:30). 그렇다면 어떻게 대접해야 할까요? 수직적인 관계, 곧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수평적인 관계, 곧 사람들을 어찌 대접해야 할까요? 성경에 뭘 답이 없겠습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22:37~40).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잘 대접하는 방법 중 으뜸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이 최고의 대접이라는 겁니다. 아이가 자기 친구들 앞에서 ‘우리 아빠는 못하는 것이 없어.’라고 했다면 아빠의 기분이 어떨까요? 반대로 ‘우리 아빠는 아마 이것도 못

할 거야.’라고 했다면요?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임신한 마리아. 그녀는 사내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눅1:34)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셔도 이 일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눅1:36~37)고 말하고 떠났

니다.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심을 보여줄 모델을 설정해

준 것 입니다. 이 에 마리아가 직접 엘리사벳을 찾아가 그를 보고, 그에게 들더니 믿음이 확고해져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눅1:47~48) 라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엘리사벳을 보고, 그에게서 듣고 믿음이 성장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사렛을 왜 떠나셨습니까? 고향에서 예수는 목수의 아들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목수 요셉의 아들이지 절대 선지자로 대접받을 수 없었기에 고향을 등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베드로를 복되다 하시고 그를 축복하사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히11:6).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인정해드리는 것

이 최고의 대접이며, 하나님은 자기를 옮겨 대접한 자를 위해 당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해드렸습니까? 일이 생기면 권력자를 찾고, 재력가를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이건 하나님도 못하셔.’ 하면서 좌절하고 포기한 일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대접한 대로 당신을 대접하십니다.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시니까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로 가리까’ 하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최고의 대접을 해주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마10:32~33)는 말씀처럼 하나님도 상대적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울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보낸 사자도 하나님처럼 대접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자청하여 지극정성으로 대접한 일이 있습니다. 떡을 만들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대접한 일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그토록 바라던 자식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저 역시 외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을 최고로 대접합니다.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요13:20)이라는 말씀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자동차로, 최고의 호텔에서, 최고의 음식으로 모십니다. 갈 때도 빈손이 아니라 바리바리 선물을 안겨서 보냅니다. 그러면 예외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나라에 갔을 때 그대로 대접받습니다. 하나님은 ‘소자에게 한 것도 내게 한 것’

이라고 하셨습니다(마10:42). 어느 젊은이가 기도원 집회 기간 중 설레임이라는 아이스크림을 3,000개나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너는 단번에 주님을 3,000번 대접한 셈이다.’라고 말해줬습니다. 둘째, 아내를, 남편을, 내 직장동료를, 부하직원을, 내 성도들, 내 백성을 내 몸처럼 대접하는 겁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설 때면 “내가 짜장면 먹고 싶으면 내 아내도 짜장면 먹고 싶은 거다. 내가 놀러 가면 아내도 놀러가고 싶다.”라고 꼭 말합니다. 또 “복어는 사흘에 한 번씩 패야 한다며 아내를 폄하하는 놈들이 있는데, 자기 몸을 사흘에 한 번씩 패봐라. 병들고 만다.”라고도 말해줍니다. 추우면 두꺼운 옷으로 나를 보호하고, 아플새라 약도 챙기고, 맛있는 것을 찾아가 먹으며 자신을 챙기듯 상대도 그렇게 대하라는

세상은 부메랑 원리다 뿌린 대로 거둔다

것입니다. 우리 집 들어서는 골목에 큰 개가 하도 짖길래 ‘이놈!’ 하고 눈을 부릅뜨고 야단을 치니까 더 짖어댁니다. 내 발소리만 들려도 동네가 떠나가라 짖어댁니다. 그래서 집에서 고깃덩어리를 가져다 몇 번 던져줬더니 나중에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대지 뭘니까. 내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짖어대던 놈이 이제는 내 발소리에 벌써 마중을 나와 반깁니다. 개도 이렇진대 사람이야 일러 무엇하겠습니까? 인연은 하나님이 맺어주지만, 관계는 내 노력여하에 달린 겁니다. 자고로 음식도 맛이 있어야 하듯 사람은 맛, 인간미가 있어야 합니다. 따뜻한 정, 사랑, 용서가 있을 때 사람 맛이 나는 법이지요. 상대를 따뜻하게, 말 한마디라도 정겹게 나눠보세요. 아내를 종 부리듯 하지 말고 사랑으로, 남편을 돈 벌어오는 머슴 취급하지 말고 가장으로 대접해주세요. 기업에서도 경영진과 근로자가 서로 돕는 협력자로, 동역자로 대접하세요. 노사분규란 남의 집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권력을 마구 휘두르면 국민에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대통령이 배라면 국민은 물이니까요. 물이 한번 출렁하면 항공모함도 침몰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리고 나도 대접하세요. 운동으로 건강하게 하고, 영양식도 먹고... 또한 독서로 혼을, 기도와 말씀으로 영을 건강하게 하세요. 세상사 자업자득이라 합니다. 지금의 나를 돌아보고 그동안 나는 하나님과 상대에게 어떻게 대했지 깊이 생각해봅시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마음의 채에 걸러진 것은?

기도원에서 심신을 담금질하며 하루하루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루는 산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런데 어느 직원 한 분이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 ‘신상에 무슨 일이 생기셨나?’ 가던 길을 멈추고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드리다가 급기야 내 가슴마저 먹먹해지고야 말았다. “예년 같으면 지금이 한창 산상집회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기도 성산이 코로나로 인해 텅텅 비어 있네요. 제 마음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마음은, 또 총회장님의 마음은 얼마나 허전하십니까?” 아..., 아름답고도 아름답다. 하나님을 향한, 영혼들을 향한 그 눈물이... 기도원 가족들은 매일 새벽과 저녁에 함께 모여 부르짖어 기도한다. 일이 고단함에도 상관없다. 날의 꺾임에도 개의치 않는다. 기도의 제목은 오직 하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언제나처럼 먼저 나라의 안녕을 구한다. 질 좋은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기를 구한다. 그래서 마음껏 예수를 전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기도 성산에 모여 기쁨으로 집회를 할 수 있기를, 그래서 예루살렘기도원이 영적 훈련소요, 정비소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그야말로 간절히 기도한다. 이를 위해 교단과 이끌어 가시는 총회장님을 위한 기도를 단 하루도 쉬지 않는다!

이분들이라고 부족한 것들이야 왜 없겠

신현명 목사

:: 세상을 보는 창 ::

분노라는 틈

칭기즈칸은 몽골고원의 여러 부족을 통일해 대제국의 기반을 다진 인물이다. 그는 집안 탓, 남의 탓, 가난 탓, 배움 탓을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아홉 살에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들쥐를 잡아 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내 일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었고, 병사로만 10만, 백성은 어린애 노인까지 합쳐 2백만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을 깎그리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테무진에서 칭기즈칸이 되었다.”

칭기즈칸에게는 이런 일화가 있다. 그는 사냥을 나갈 때면 늘 매를 사랑하여 데리고 다녔다. 하루는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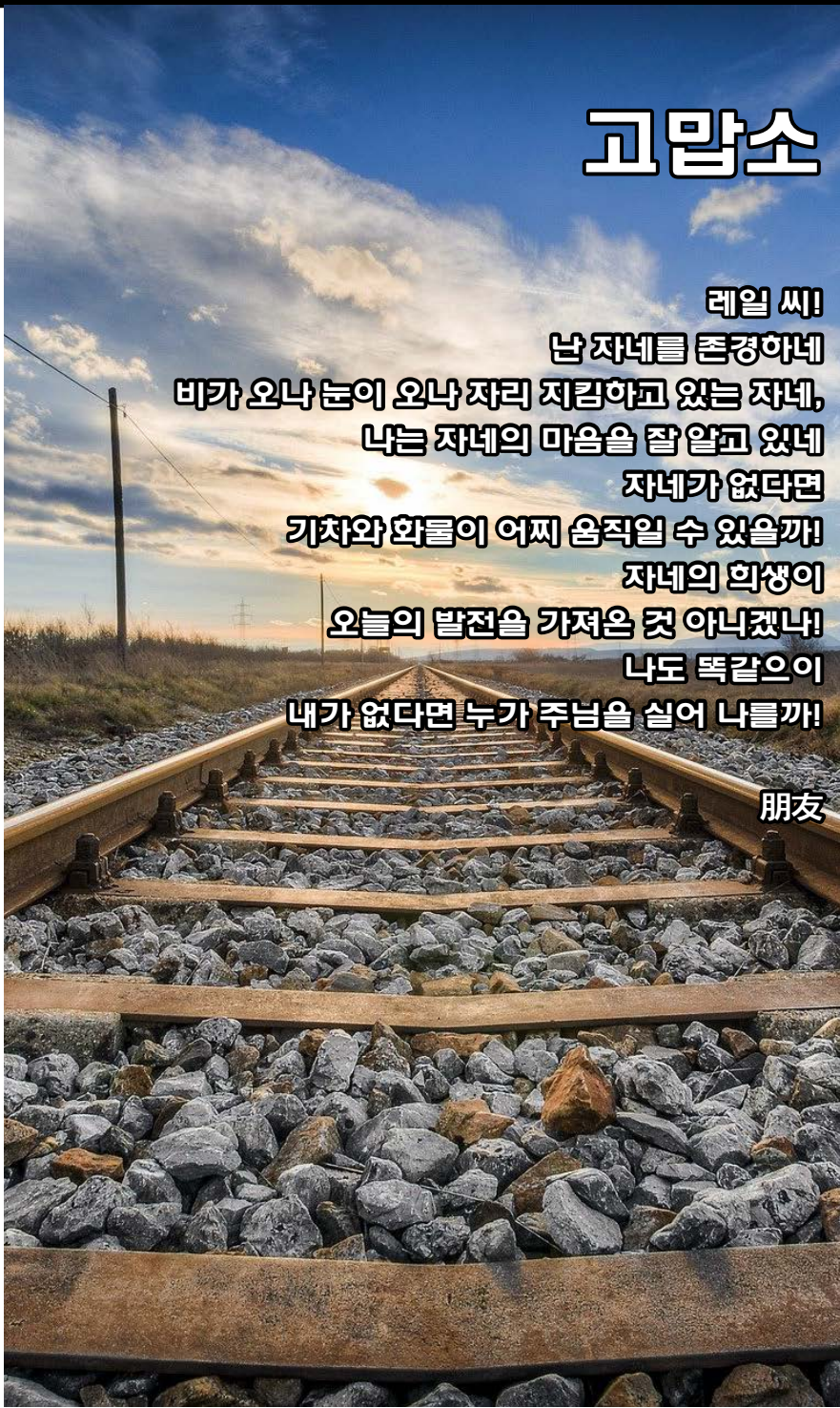
는가! 그러나 그 모든 결핍은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와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명감으로 인해 채워지고도 남음이 있었다. ‘커피 거름망’은 커피 찌꺼기를 걸러낸다. ‘싱크대 거름망’은 음식물 찌꺼기를 걸러낸다. 반면에 ‘조리(箒簾)’는 쌀을 걸러내고, ‘패닝접시’는 사금을 걸러낸다.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의 채로는 지금 무엇을 걸러내고 있는가? 감사와 은혜인가, 아니면 원망과 섭섭함인가! 바울의 말을 듣기보다 선주(船主)의 말을 더 믿었던 백부장 율리오 일행은 결국 유라굴로(태풍)를 만나 파선할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때조차 사도 바울은 그 누구를 원망하거나 비난의 화살을 돌리지 않았다. 오히려 약속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한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행27:25).

기나긴 코로나 사태로 경기가 어렵고 시국도 불안정하다고들 한다. 하지만 천국을 대망하는 우리라면, 이러한 상황에서 더더욱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아야’(히12:2)할 것이다. 마음의 채에 걸러진 모든 부정과 불신앙을 버려버리고 말이다.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남지만 포기하면 상처만 남는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 눈물 흘리는가? 당신은 지금 누구를 위해 부르짖는가?

이정금 전도사



고맙소

레일 씨!
남 자네를 존경하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자리 지킴하고 있는 자네,
나는 자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네
자네가 없다면
기차와 화물이 어찌 움직일 수 있을까!
자네의 희생이
오늘의 발전을 가져온 것 아니겠나!
나도 똑같이
내가 없다면 누가 주님을 실어 나를까!

朋友

:: 내가 매일 기쁘게 ::

실천의 중요성

요즘 나의 최대 관심사는 졸업이다. 박사 논문을 제출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러 저러한 일들로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면서 시간을 놓쳤고, 지금까지 미뤄둔 상황이다. 이제 남은 시간은 2년. 그 전에 졸업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자 목표이다. 200~300쪽에 달하는 긴 논문을 써야 한다는 압박감이 나를 내리눌러 가끔씩 막막할 때가 많다. 그래서 요즘은 기본을 쌓는다는 마음으로 연구논문들을 닦치는 대로 읽고 있다.

어느 날, 연구논문들을 읽다가 탄식하듯이 남편에게 구시렁거렸다. “나도 이렇게 글 잘 쓰고 싶어요.” 사실 이 구시렁구시렁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나를 쳐다보며 한마디 한다. “그럼 뭐라도 좀 적어보세요.” 솔직히 매번 같은 남편의 조언은 내게 위로가 되지 않았고, 여전히 논문의 압박감은 나를 쫓아다니며 괴롭히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인터넷을 뒤적거리다가 믿거나 말거나 한 에피소드를 보고 새삼 남편의 조언이 가지고 있던 힘을 깨닫게 되었다.

어떤 유명한 화가가 있었다. 그는 젊은 시절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방황하

던 중 하나님을 만났다. 그는 곧 재기하여 명작을 남길 수 있었다. 그에게 친구들이 “자네처럼 좋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라고 묻곤 했다. 그럴 때마다 이 화가는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묻기 전에 일단 붓을 들고 그리기 시작하게.”라고 했다. 이 예화의 뒤에 따라오는 말은, 남편이 내게 늘 하던 그 말이었다. 신중하게 오래 준비하고, 기본기를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행동’이라는 말이었다.

나는 언제부턴가 나의 부족함을 탓하며, 주저앉아 끝없이 망설이고만 있었다. 하지만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바로 ‘Just do it.’ 나를 믿고 쓰기 시작하는 것. 내 안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행동으로 옮기다 보면, 어느 날에는 반드시 졸업도 하고, 내가 부러워했던 글 잘 쓰는 사람의 그 자리에 가 있지 않을까? 오늘은 그런 믿음으로 이 글을 적어 본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욥23:10).

전훈지

:: 간중 ::

:: 귀를 기울이세요 ::

천국은 내 거예요!



저는 올해 100세인 여인에 권사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건강하게 장수한 것도 감사한데 간증까지 하게 되어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1922년 10월 1일에 태어나 파주 주내장로교회를 시작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젊었을 때 남편과 함께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년 초마다 1월 3일이면 금식하러 저녁에 산에 올라가 새벽 3시쯤 하산하기를 사흘 동안 하는데, 이러면 나무도 나를 반기고 새들도 웃고 방언도 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이 감리교회를 가기에 따라갔지만, 그곳은 내가 다니던 교회처럼 편하지 않아 주내교회에 정착을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1988년 1월 26일, 이초석 목사님께서 주내교회에 부흥집회를 오신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제가 아는 동네 분들과 집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하루 집회가 끝나고 교회 장로님이 집회를 극구 반대하셨습니다. 그 이유인즉 이초석 목사님과 동행한 김근철 집사님이 여러 가지 악기로 반주하며 찬양하셨는데, 그것이 아마 못마땅하신 모양입니다. ‘이렇게 시끄러운 집회가 무슨 집회냐, 이게 은혜가 되겠느냐’ 하며 재직들을 선동하신 겁니다. 그 장로

님은 별 두 개를 단 장성이셨으니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교회는 그분 말씀을 존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초석 목사님께서서는 다음 날 아침 11시 예배를 시작하셨습니다. 제 친구 중 말 못하는 무당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이곳저곳을 다니며 말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안타까워 제가 교회에 같이 가자고 하면 간절한 마음에 저와 동행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께서 집회에 오지 말라고 한 그날, 저는 안 가고 무당 친구는 목사님 집회에 갔는데, 그곳에 다녀온 이웃 분들이 말하기를 무당 친구가 ‘나는 간다. 나는 간다’ 하더니 쓰러져서 귀신이 나갔다고 목사님을 무서워한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신기했고, 그때부터 저도 목사님이 가르쳐주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제 몸에 이상 신호가 올 때마다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남편이 전화해서 다시 부흥집회를 시작하니 빨리 교회로 오라고 해서 저는 소래에서 일하던 것을 그대로 놔두고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하니 인산인해로 입추의 여지없이 단상까지 꽉 차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부흥회를 잘 마치고 사위들과 딸들이 목사님께 무엇을 좋아하시냐고 물으니 매운탕을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임진각까지 가서 물메기를 사다 끓여드렸는데, 목사님은 제 두 딸 영희와 영주 사위들에게 목사가 된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어느 날, 주내교회 목사님께서 파주까지 다니기 힘들니 가까운 교회 다니라고 배려해주셔서 온 식구가 예수중심교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여름 기도원집회 때였습니다. 소래 상인회에서 놀러 가는 것을 빠지면 10만 원씩 벌금을 내야했지만, 저는 그곳에 가지 않고 여름집회를 참석했습니다. 첫 시간 김근철 목사님이 반주하시는데 박수도 못 치던 제 손이 깨끗이 났겠다는 생각이 들어 호주머니에 있던 물질을 모두 꺼내 봉투에 넣을 틈도 없이

제단에 바쳤고, 제 손을 고쳐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후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고 지금까지 후유증도 없습니다. 제가 소래에서 항상 찬 것, 찬물을 많이 만지니 손에 껌질이 다 벗겨지고, 손이 뻣뻣해서 손뼉이 잘 안 쳐졌습니다. 박사학위 받은 의사 선생님도 고칠 수 없었던 그 병을 아버지께서 치유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올림픽공원 금요일아침예배에 참석해 딸 둘 영희, 영주와 두 사위가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 후 영희 남편은 문산에서 목회를, 영주 남편은 동두천에서 목회를 시작해 2,00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을 섬기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 성경 읽기, 성경 필사, 찬양, 운동을 하고, 틈나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지금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 은혜를 항상 사모합니다. 제가 얼마나 더 교회에 나올 수 있을지, 얼마나 더 목사님의 얼굴을 뵈 수 있을지 모르는 일이라 99명밖에 갈 수 없는 이 코로나 기간에도 교회에 꼭 갑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우리 가족에게 목사님을 통해 심비에 박히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자라나 지금까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었으니 목사님의 은혜를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저는 ‘천국은 내 거다’라고 늘 말하며 삽니다.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천국, 곧 가게 될 천국을 늘 사모하며 오늘도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역시 이초석 목사님을 만나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천국의 소망을 두게 되었으니 목사님과 함께한 제 삶은 천국이었음을 고백합니다. 100세까지 살았으니 세상에 무슨 미련이 남았을까요. 언제든 부르시면 ‘할렐루야’ 갈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천국에서도 만나요.

인천교회 여인에 권사

:: 용달샘 ::

당신의 약점은 무엇인가?

학식도 뛰어나고 인격 또한 남다르다고 정평이 나있는 한 국회의원이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과 행동을 주목하며 그의 지도력에 큰 기대를 보내고 있었다. 그의 정적으로선 그 국회의원의 존재가 늘 눈에 가시 같았다.

어느날 참모들을 모아놓고 대책을 숙의하던 중, 그의 치명적 약점을 찾아 언론에 공개함으로써 그의 대중적 지지에 일대 손상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레한 기업가를 보내 막대한 정치자금을 건네며 자기 기업에 유리한 입법청원을 위해 힘써줄 것을 제의했다. 그는 눈도 꿈쩍하지 않고 돈과 함께 기업가를 돌려보냈다. 다음으로 그 나라 최고의 미녀를 골라 그를 유혹하게 해보았다. 늘씬한 팔등신 미

녀가 교태를 부리며 달려들어 도 그는 목석같이 무표정했다. 이번에는 좀 더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했다. 그의 측근들과 후원세력을 의심케 하는 사건을 조작해서 이간질 시키는 전략을 구사해보았다. 그러나 오랜 동지의식으로 뭉친 그들은 오히려 뽕뽕 뭉쳐 대응해대는 것이었다. 정말 속수무책이었다. 그런데 그 때 한 모사꾼이 나섰다. “그는 대중적 지지를 얻는 것만큼이나 장관 자리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와 박빙의 경쟁을 벌이는 모 국회의원을 내무장관으로 임명하십시오. 그는 아마 의외의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실제로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그는 불같이 화를 내며 언론에 대고 불붙이니, 밀실 조작이니 하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모든 언론은 그의 지나친 태도에 대해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내며 ‘한자리 앞에는 뛰어난 학식도 인격도 빛을 잃는가?’ 하는 의견의 기사를 한 목소리로 내보냈다. 그에 대한 지지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그의 인격과 도덕성에 대한 대중의 실망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케 했다.

사실 그가 흥분한 것은 단순히 장관 자리를 놓쳐서가 아니다. 그것보다는 자신과 경쟁하는 자에게 자리를 빼앗긴 질투에서 비롯된 것이다. 돈도 여자도 의심도 그를 넘어뜨리지 못했지만, 인간의 경쟁의식이 그를 질투로 멍들게 했다. 남이 잘될 때 박수를 보낼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인격자다. 그러한 자세가 오히려 나를 높일 수 있는 전략임을 아는가?

당신의 약점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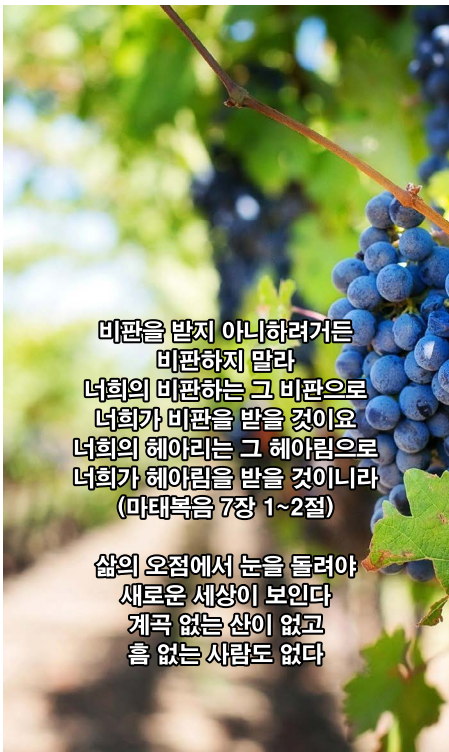
예수중심편집실

배워야 산다!

최근 한 광고에 출연한 22살 여성모델의 등장이 뜨겁다. 그녀는 가상인물이다. 그녀, 로지는 과거 공상과학영화에서 등장하던 어색한 AI의 모습이 아닌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친근하게 다가왔다. 7월 말 한 단체에서는 메타버스 프로그램 ‘게터타운’에서 청소년 여름수련회를 진행했다. MZ세대에 걸맞게 저마다 각자의 이름과 복장, 헤어스타일을 한 아바타들이 가상공간 수련회 강당에 모여 노래를 부르고 조별 방에 모여 의견을 나눈다. 메타버스와 화상채팅을 통한 시스템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저마다 한껏 기뻐하며 수련회를 마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이처럼 코로나 이후 시대가 초단위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걸맞게 우리 교회에서는 최근 큰 이슈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성도와 성도, 성도와 목회자 간에 화상채팅 심방이 가능하도록 전 성도에게 화상채팅 앱 Zoom을 교육시킨 일이 있었다. 머리가 회색회색해진 권사님부터 애기엄마 집사님까지 줌(화상채팅 앱)으로 소통을 하고, 다 같이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신기했다. 처음에는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심방을 하는 게 어색하기도 하고, 스마트폰에 설치를 하고 설명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화상채팅에 선수들이시다. 이견 총회장 목사님께서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는 말씀을 늘 예배를 통해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 배움을 실천하고자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도전한 결과이다. 앞으로도 ‘메타버스(가상세계: 초월(meta) + 우주(universe)의 합성어)’라는 새로운 시도와 세상 앞에 또 어떤 배움과 새로운 예배 환경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총회장 목사님의 “인간은 보고들은 것 이상 초월할 수 없다!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는 가르침을 받았기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송현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

삶의 오점에서 눈을 돌려야
새로운 세상이 보인다
계속 없는 산이 없고
흙 없는 사람도 없다